

따짜야나 톨스따야의 단편 「새와의 만남」에 나타난 절망과 죽음의 모티프

- 조이스, 은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 행 규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대 러시아 작가인 따짜야나 톨스따야의 초기 단편 가운데 하나인 「새와의 만남」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담고 있다.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였듯이 톨스따야의 작품은 비유로 가득하다. 「새와의 만남」은 그녀의 작품이 갖는 비유적 경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유적 경향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독서전략이 필요하며, 그런 이유로 본 논문은 주도적인 모티프의 파악에 천착하였다. 모티프 분석은 우선 새와의 만남이라는 심히 비유적인 제목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였다.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작품 속에 드러난 새와의 만남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품을 이끌어가고 있는 두 개의 주도적인 모티프를 분석하였다.

소년과 여자의 만남이라는 소년의 사랑이야기는 절망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전개되었으며 전체 작품의 한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할아버지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과의 만남의 이야기는 죽음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전개되었으며 작품의 또 다른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유년에 만나는 절망과 죽음은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견지한 일종의 문체의식이 될 것이다.

절망과 죽음이라는 주도적인 모티프가 갖는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유년에 조우한 절망과 죽음을 매우 성공적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조이스의 「애러비」와 에이비트 혼손의 「보트 속의 남자」를 각 작품의 주도적 모티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애러비」와의 비교를 통해 「새와의 만남」의 소년의 행위의 심리적 원인이 더 자세히 설명되고, 절망의 구체적 대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절망의 주인공 내적 원인(예를 들어 「애러비」 소년의 허영심과 폐차의 허영심)이 더 명확히 입증된 것은 비교 연구의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트 속의 남자」와의 비교를 통해 죽음에 대한 폐차의 막연한 공포를 일종의 죄의식으로 설명한 것 역시 두 작품과의 비교가 주는 유의미한 결과가 될 수 있겠다.

주제어 : 모티프, 절망, 죽음, 비유, 「새와의 만남」, 「애러비」, 「보트 속의 남자」

1. 서론

따짜야나 톨스따야가 1983년 자신의 데뷔작 「황금 문간에 앉아...」(На золотом крыльце сидели...)로 비평가들에 의해 현대 러시아 문학의 새로운 현상으로 평가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작품에 도입된 눈부신 동화적 상상력, 풍부한 문학적 비유, 새롭게 조명된 러시아 문학의 전통적 주제, 시대 상황을 반영한 첨예한 문제의식 등은 세인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많은 작가들의 처녀작이 그러하듯이 톨스따야의 최초의 작품도 유년시절의 기억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의 요정 뮤즈의 어머니 트네모시네의 어원적 의미가 기억임을 감안할 때, 문학이란 것은 기억, 그것도 유년의 기억과 원형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톨스따야는 자신의 창작활동 최초의 해인 1983년에 데뷔작인 「황금 문간에 앉아...」와 더불어 「새와의 만남」(Свидание с птицей)이라는 작품도 썼다. 데뷔작인 「황금 문간에 앉아...」가 그녀의 최초의 작품으로서 비평가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1987년에는 첫 단편집의 제목이 되면서 그 영광을 이어간 것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쓰인 또 다른 단편 「새와의 만남」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새와의 만남」은 앞서 언급했듯이 작가가 데뷔한 1983년에 쓰인 두 개의 단편 가운데 하나이며, 「황금 문간에 앉아...」처럼 유년시절에 대한 서사를 담고 있고, 강력한 동화적 상상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초 단편과 비견될 수 있는 비중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작품은 비록 개별적인 작품이지만 창작 시기적인 면에서 서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또한 작가의 문학 이력적인 측면에서도 이후의 작품의 주요 경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작품으로 사료된다. 만약 「황금 문간에 앉아...」가 ‘황금’(золотое)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보여주듯이 형식적인 측면, 다시 말해 미학적인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새와의 만남」은 내용적인 측면, 예컨대 주제적, 사상적 측면에 더 많은 주의를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게다가 전자가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어린 주인공의 소극적 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후자는 그런 소극적 관찰에서 벗어나 어린 소년이 세상과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좌절하는 적극적인 행동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황금 문간에 앉아...」가 문간에 앉아서 유년의 뜰(сад)을 아름답게 바라본 것이라고 한다면 「새와의 만남」은 유년이 세상과 직접적으로 치절하게 조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와의 만남」이 지니는, 작가의 문학 활동 시작과 궤를 같이하는 해당 작품의 원형적 성격에 주목하면서²⁾ 최초 작품과의 연장선상에서 그의 다른 작품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지는 본 작품의 주도적인 모티프를 고찰하고 이러한 모티프가 갖는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다른 외국작가의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새와의 만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로 이수연의 것이 있다. 연구자는 서사구조의 특성에 집중해 이 작품을 고찰하였다. 이수연, “유년의 서사: 부재하는 실재(『새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3권 제3호, 2008.

2) 이후의 작품들에서 톨스따야의 주인공은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으며 단지 하나의 틀 속에서 인물의 전형성을 논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연구자들의 인물별 연구 성과와 관련한 간단한 서지는 이수연, 최행규, ‘다른 산문’과 타티야나 톨스따야: 「파키르」의 분석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28권 2호, 2012, 147쪽을 보라. 한편 본 연구는 톨스따야의 다양한 성격의 주인공들 가운데 그 원형적 성격에 해당하는 유년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II. 새와의 만남, 그 제목의 의미론

작품의 주요한 모티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 제목이 지니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 작품의 제목은 작가의 창작 의도를 함축하고 있기 마련이며, 게다가 이 작품의 제목인 새와의 만남은 얼핏 볼 때 다소 비현실적이거나 아니면 매우 비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³⁾ 우선 새와 만난다는 의미도 보편적이지 않고, 또 만남이란 단어가 우연한 또는 일반적인 만남을 뜻하는 단어 *встреча*가 아닌 조건적인 동시에 필연적인 또는 남녀 간의 애정적 만남을 뜻하는 단어 *свидание*를 사용했다는 측면도 뭔가 제목의 비유적 성격에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 특히 단어 *свидание*가 갖는 만남의 성격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만남의 대상이 되는 새(*птица*)도 역시 비유적 의미로 다가온다.⁴⁾ 이런 바탕에서 살펴볼 때 실제로 작품에는 주인공 소년과 그가 좋아하는 한 여인과의 만남이 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스스로가 마법에 걸린 존재이며 레몬 씨로 만든 목걸이를 얻으면 날아 갈 수 있다고 말한다.

— Ты, когда лимоны будешь есть, косточки для меня собирай, ладно? Если сто тысяч лимонных косточек собрать и бусы нанизать, можно полететь, даже выше деревьев, знаешь?⁵⁾

-
- 3) "폴스파야의 작품에서 비평가는 현실 이해의 수단이 되는, 예언적 힘을 지닌 비유를 발견한다. 그녀의 모든 단편은 저자의 인식의 특별한 담론을 말하는 비유적 형성의 유희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작가에게 있어 숨겨진 정보의 소지자는 예술적 이미지, 디테일, 작품의 제목이다." O.B. Сизых, *Поэтика русского рассказа конца XX - начала XXI века*, M., 2015.
- 4) 비평가 게니스는 “저자에게 비유는 위험한 것이다. 비유가 뛰어날수록 책의 운명은 더 힘들다.”고 말할 바 있다. Генис А.А. Как и слово// *Новая газета*. 2010. 20 октября. URL: <http://www.novayagazeta.ru/society/1069.html> 이는 작가가 비유를 사용하기는 쉽지만 그런 비유들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담은 어쩌면 독자에게 고스란히 옮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자도 나름대로의 독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Толстая Т.Н. *Река Окервиль, рассказы*, M., 2002, С. 66. 이하 「새와의 만남」의 텍스트 인용은 이 작품집에 따르며 인용문 끝에 쪽수를 표시하기로 한다.

“그럼, 레몬 먹을 때 나를 위해 레몬 씨를 모아줄래, 응? 십만 개의 레몬 씨를 모으면 목걸이를 엮어 날아갈 수 있어, 나무들 보다 더 높이 말이야, 알았지?6)

보다시피 그녀는 작품에서 새에 비유되고 있다. 적어도 소년의 입장에서서는 그러하다. 그녀가 새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녔을 것이란 생각은 소년의 동화적 상상 속에서 더 구체화된다.

Она и гибель Атлантиды видела — пролетала над гибнущим миром в бусах из лимонных косточек. Ее и на костре хотели сжечь, за колдовство, уже потащили, а она вырвалась — и под облака: бусы-то на что? А вот дракон украл ее, унес со стеклянной горы, из стеклянного дворца, а бусы там так и остались — висят на зеркале.(67)

그녀는 아틀란티스의 멸망도 보았겠지 - 멸망하는 세계 위를 레몬 씨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날아다녔겠지. 그 마법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화형에 처하려 했지만 구름 속에 몸을 숨겨 위험에서 벗어났던 거야. 목걸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붉은 용이 유리 성에서 그녀를 납치할 때 성에 남겨 두고 온 거야 - 거울에 걸려둔 채.(84-85)

또한 그녀는 새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새들은 일반적인 새가 아니며,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그녀는 이런 새들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6) 타티야나 톨스타야 지음, 이수연 옮김, 톨스타야 단편집, 서울, 2009, p. 83. 「새와의 만남」의 한글 번역이 이미 나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번역을 준용하되 인용한 문장이 지니는 논쟁적 의미로 인해 더 섬세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논문의 성격상 논증을 위해 새로운, 더 정밀한 언어의 사용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은 연구자 본인의 수정된 번역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이하 「새와의 만남」 한글 텍스트 인용은 이 책에 따르며 인용문 끝에 쪽수를 표시하기로 한다.

— Покажи. Ах, птица-то. Это птица Сирин, птица смерти. Ты ее бойся: задушит. Слышал вечером, как в лесу кто-то жалуется, кукует? Это она и есть. Это птица ночная. А есть птица Финист. Она часто ко мне летала, а потом я с ней поссорилась. А то есть еще птица Алконост. Та утром встает, на заре, вся розовая, прозрачная, насквозь светится, с искорками. Она гнездо вьет на водяных лилиях. Несет одно яйцо, очень редкое. Ты знаешь, зачем люди лилии рвут? Они яйцо ищут. Кто найдет, на всю жизнь за тоскует. А все равно ищут, все равно хочется. Да у меня оно есть — подарить?(68)

“어디 보자. 아, 새가 맞군. 이것은 ‘시린’이라는 새야. 죽음을 부르는 새지. 무서울 거야. 그 새는 사람을 질식사킨단다. 저녁 무렵 숲에서 누군가 푸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니? 빠꾸기 울음소리처럼 말이야. 그게 바로 이 새야. 이 새는 밤의 새지. 반면 ‘피니스트’라는 새도 있어. 이 새는 나에게 자주 날아오곤 한단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말다툼을 하기도 해. 그리고 또 다른 새, ‘알코노스트’라는 새도 있어. 이 새는 새벽녘에 일어나지, 온통 장밋빛의 투명한 깃털을 가지고 있어. 그 깃털 주위에는 작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단다. 이 새는 수련 꽃에 둥지를 틀어. 그리고 아주 귀한 알을 낳는단다. 사람들이 왜 수련 꽃을 꺾는지 아니? 그 알을 찾으려는 거야. 그 알을 찾는 사람은 평생 외롭게 살아야만 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알을 찾아서 갖고 싶어 하지. 마침 나에게 그 알이 있단다. 너에게 줄까?”(86)

그녀는 그 알을 찾아서 소년에게 전달한다. 소년은 평생 외로워해야 하는데도 왜 이 알을 받았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그 알은 소년에게는 일종의 사랑의 징표가 된다. 소년은 상상 속에서 이미 그녀의 남편이 되었다.

Петя лежал в кровати и думал, как он будет жить с Тамиллой в большой комнате с китайскими розами.(69)

페차는 침대에 누워 화병에 무궁화가 꽃혀 있는 넓은 방에서 타밀라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87)

어린 소년에게 그녀는 항상 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녀는 소년에게 여러 새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신비한 알을 주었고, 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그녀에게 빠져드는 계기가 되는, 하늘을 나는 비밀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Петя не знал, верить или не верить, но хотелось смотреть и смотреть на нее, как она говорит, как качается в диковинном кресле, как звенят медные колечки. Она его не поддразнивала, не заглядывала в глаза, проверяя: ну как? интересно я рассказываю, а? нравится? Просто качалась и звенела, черная и длинная, и советовалась с Петей, и он понял: это будет его подруга на веки веков.(66-67)

폐차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고, 흔들의자의 흔들림과 담배 파이프에 달린 청동 고리의 울림에 최면이라도 걸린 듯 그 자리에 머물고 싶기만 했다. 그녀는 폐차를 어린애 취급하지 않았다.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전혀 무시하지 않았다. 내 이야기가 재미있지, 그치? 마음에 들지? 뼈꺼거리는 소리를 내는 흔들의자를 계속 흔들며 대며 검은 드레스를 입은 긴 머리의 그녀는 폐차를 당당한 이야기 상대자로 대했다. 폐차는 곧 이 여인이 자신의 영원한 애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83-84)

이상으로써 볼 때, 이 비유적인 작품 제목은 어린 소년의 연애담과 서로 상응한다는 느낌을 독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사랑이 흔히 그렇듯이 소년의 사랑 또한 좌절과 슬픔을 동반하게 된다.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앓고 있던 할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그래도 혹시 그녀의 능력으로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 소년은 그녀를 찾아간다. 그런데 그 집에서 외삼촌과 그녀의 정사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외부자의 침입에 당황한 외삼촌에게 소년은 할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외삼촌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뒤로 하고 그 집을 뛰쳐나온다.

душа сварилась как яичный белок, ключьями повисала на несущих навстречу деревьях; кислое горе бурлило во рту; добежал о озера, бросился под мокрое, сочащееся дождем дерево; визжа, колотя ногами, тряся головой, выгонял из себя страшные дяди Борины слова, страшные дяди Борины ноги.(76)

터진 틈으로 비어져 나온 삶은 계란의 흰자처럼 부글거리는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져 스쳐 지나가는 나뭇가지에 걸렸다. 쓰디쓴 아픔이 복받쳐 올라왔다. 호숫가에 이르러 빗물을 잔뜩 머금은 나무 아래 몸을 던졌다. 다리로 나무를 찢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머리를 정신없이 흔들며 때리며 괴물 같은 외삼촌의 악담과 그의 다리 모습을 머리에서 털어내려고 애썼다.(101)

결국 새와의 만남은 유년시절의 한 사건을 지칭하며 설렘으로 시작한 만남은 마침내는 절망으로 끝이 난다. 절망은 진행된 사건의 결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미 작품의 시작 부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마치 동화화도 같은 제목을 지니고 유년의 삶을 묘사한 작품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자연묘사는 우울하기 그지없다.

И низко над садом, колыхнув вершины темных древесных холмов, проносится судорожный, печальный вздох: это умер день.(63)

불안하고 우울한 탄식이 어둠을 이고 있는 나무 언덕의 정수리를 가볍고 흔들고 정원으로 낮게 깔린다. 하루가 숨을 거둔 것이다.(77)

저녁 식탁에서 제공된 쌀죽 접시와 그 속에서 서서히 녹고 있는 버터 조각 속에도 소년의 불안한 의식이 있다. 버터 조각을 물속으로 가라앉힌 아틀란티스로 여기는 상상은 소년의 것이지만 극도의 화려함이 이내 완전한 무의 상태로, 일상적 삶이 무자비한 절망의 상태로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디테일은 이미 작가의 것이다.

Белые дворцы с изумрудными чешуйчатыми крышами, ступенчатые храмы с высокими дверными проемами, прикрытыми струящимися занавесами из павлиньих перьев, золотые огромные статуи, мраморные лестницы, уходящие ступенями глубоко в море, острые серебряные обелиски с надписями на неизвестном языке — все, все уйдет под воду. Прозрачные зеленые океанские волны уже лизут уступы храмов; мечутся смуглые обезумевшие люди, плачут дети... Грабители тащат драгоценные, из душистого дерева, сундуки, роняют; развеивается ворох летучих одежд... ничего не пригодится, ничего не понадобится, никто не спасется, все скользнет, накренившись, в теплые прозрачные волны... Раскачивается золотая, восьмизэтажная статуя верховного бога с третьим глазом во лбу, с тоской смотрит на восток...(63-64)

비늘 모양의 에메랄드 빛 지붕이 흰 궁전, 계단, 공작 털로 만든 커튼이 드리워진 높은 대문, 번쩍번쩍 빛나는 금 조각상들, 깊은 바다 속으로 향하는 대리석 계단, 알 수 없는 말이 적힌 뾰족한 은빛의 오벨리스크 - 모두, 모두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맑은 초록빛 파도는 이미 사원의 대들보를 휘감는다. 겁에 질려 놀란 사람들이 우왕좌왕한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린다... 약탈자들은 향나무로 만든 보물 껍질들을 끄집어낸다. 아차 떨어뜨린다. 날아다니는 옷의 더미들이 쏟아진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도 목숨을 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따뜻하고 맑은 바다 속으로 미끄러진다. 이마에 제3의 눈을 가지고, 우수에 잠겨 동쪽을 바라보는, 금으로 만든 8층 건물 높이의 최고신의 동상이 비틀거린다.(78)

음식물을 앞에 두고서 벌이는 소년의 장난은 한편으로는 한 집에 살고 있는 병든 할아버지의 미래에 대한 소년의 불안감을 예견해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품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환기되고 있는 작가의 불안 의식, 즉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절망의 모티프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본다.

소년과 같이 살고 있는 외삼촌도 소년에게는 항상 불안한 존재이다. 그는 사랑에 빠진 소년을 늘 비웃으며,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소년과는 달리 할아버지의 병에도, 임박한 죽음에도

무관심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소년이 사랑하는 여인과 정사를 벌임으로써 소년을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도 자신의 기분이 망친 것에만 분노하는 외삼촌의 모습에서 소년은 할아버지의 상실과 사랑하는 여인의 상실이라는 이중의 절망에 괴로워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새와의 만남을 주인공 소년과 새와 연관성을 지니는 한 신비한 여인과의 만남이라고 볼 때 이 한편의 사랑이야기를 관통하는 주도적인 모티프는 절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새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이 지니는 또 다른 비유적 의미를 작품 스토리상 소년의 연애 사건과 동일한 비중을 갖는 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한 사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작품의 첫머리에서 보게 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위협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끝내는 할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이야기 전체의 전개로 보면 제목이 말하는 새와의 만남은 다름 아닌, 시시각각으로 할아버지의 목숨을 노리는 죽음의 그림자 같은 시린 새와 할아버지와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소년이 목격하게 되는 할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할아버지의 죽음을 새와 연관시키는 아이디어는 타밀라(소년이 좋아하는 여자의 이름이다)에게서 나왔다. 앞에 나온, 타밀라가 시린을 설명하는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시린은 죽음의 새이며 소년의 상상 속에서 할아버지의 운명은 이 새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년의 의식 속에서 할아버지는 그 새를 두려워하며, 할아버지를 죽음에서 구하는 방법은 그 새를 할아버지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Не пускайте ее к дедушке, закройте плотнее окна, двери, зажгите е лампу, давайте читать вслух! Но дедушка боится, смотрит в трев оге в окно, дышит тяжело, перебирает одеяло руками.(70)

그 새가 할아버지에게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창문과 현관을 더 단단히 잠그고, 불을 환하게 밝히고, 소리 내어 책을 읽어야 해!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 새를 무서워한다. 눈을 부릅뜨고 창을 응시한다. 힘겹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담요를 다시 덮는다.(90-91)

소년은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을 새의 방문으로 여겼으며, 할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을 시린이 천동 번개 때문에 힘이 약해진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죽음은 얘기치 않게 찾아온다. 그는 할아버지가 다소 기력을 차린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는 문 닫는 것을 깜박 잊고 나온 까닭에 활짝 열린 문으로 시린이 침입해 할아버지가 위기에 빠질 것을 알게 되지만 자신이 처한 상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 애를 태운다. 마침내 꿈에서 깨어난 소년은 할아버지의 방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게 된다. 소년의 꿈은 시종일관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자 애썼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한 소년의 자책감을 드러내는 장치로 여겨진다.

소년이 줄곧 불안해하던 새와의 만남은 이렇게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 그의 눈에는 마치 온 세상이 죽음으로 덮여 버린 것만 같다.

Мертвое озеро, мертвый лес; птицы свалились с деревьев и лежат кверху лапами; мертвый, пустой мир пропитан серой, глухой, сочащейся тоской. Все — ложь.(76)

죽어 버린 호수,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를 위로 향한 채 뻗어 있는 숲속이 새들. 황폐한 세상은 회색빛으로 물들고 절망의 그물에 갇혀 있다. 모든 것이 거짓이다.(101)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소년이 자신의 손에 타밀라의 반지가 쥐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Он почувствовал в кулаке твердое и разжал руку. Распластанная серебряная охранная жаба выпучила глаза.(76)

그는 주먹 쥔 손에 단단한 것이 있음을 느끼고 손을 폈다. 은으로 만든 두꺼비의 눈이 빛났다.(101)

알다시피 소년에게 이 두꺼비 반지는 그녀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반지

다. 그녀는 소년에게 뱀 모양의 반지는 빼서 보여주지만 이 반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 Что ты, что ты, эту снимешь — конец мне. Рассыплюсь черным порошком, разнесет ветром. Она меня бережет. Мне ведь семь тысяч лет, а ты как думал?(67)

“만일 이 반지를 빼면 나는 끝이야. 검은색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려 버릴 테니까. 이 두꺼비가 나의 수호신이지. 나는 칠천 살이란다. 믿어지니?”(84)

또한 이 반지는 소년의 생각에 죽음의 위기에 빠진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타밀라가 줄 수도 있는, 하지만 그럴 경우 자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반지이다.

Дала бы она дедушке охранное кольцо с жабой — да ведь сама тут же рассыплется черным порошком...(71)

타밀라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수호신, 두꺼비 반지라도 주고 싶었을 테지만 그렇게 되면 그녀 자신은 바로 검은색 가루로 흩날려버리게 될 터이니...(92)

그런데 바로 이 반지가 할아버지를 구할 마지막 희망(어쩌면 타밀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는 바람)으로 찾아간 타밀라의 집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외삼촌과 타밀라의 정사 장면을 목격한 소년은 분노와 배신감에서 그녀의 이 반지를 무심결에 주워서 그 집을 뛰쳐나온 것이다.

하지만 소년의 무의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이미 늦어 버렸지만 할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자신도 모르게 반지로 할아버지를 구하려는 치기어린 헛된 시도를 하게끔 만들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녀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이 반지를 자신이 가져옴으로써 그녀의 상징적 죽음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 그녀는 반지를 빼고도 검은색 가루로 흩날려

버리지 않았으니 소년에게 있어 그녀의 죽음은 상징적이다. 즉 자신의 마음에서 죽은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새와의 만남은 할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타밀라의 상징적 죽음으로 완결된다. 우리는 이 다른 하나의 스토리에서 죽음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티프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절망의 모티프가 그랬듯이 죽음의 모티프도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타밀라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알고 있던 죽음과 관련한 유일한 지식은 호수에 빠져죽은 동네 아주머니의 딸에 대한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년의 의식은 죽음을 가져오는 시린의 존재를 알려준 타밀라에 의해 구체화된다. 타밀라의 영향을 받은 소년의 상상력은 호수 주변에 있던 폐허가 된 집을 통해 강화되고 마침내는 주변의 우거진 초원에 시린이 정말로 살고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낸다. 계속되는 시린의 위협 속에서 죽음은 실감되고 소년은 실제로 길가에서 새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한다.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전조이기도 한 이 죽음 이후에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되며 마침내 이 죽음에 대한 사고의 긴 사슬은 타밀라의 상징적 죽음으로 완성된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 나타난 절망과 죽음의 모티프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유년에 만나는 이 절망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유사한 장르적 특징과 주제를 지니는 두 편의 소설과의 비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III. 조이스, 윤손과 톨스따야의 만남, 그 만남의 의미론

절망과 죽음의 모티프로 환기되는, 풍부한 비유를 지닌 톨스따야의 이 초기 단편소설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똑같이 유년에 만나게 된 절망과 죽음의 체험을 주인공 소년의 아직은 미숙한 삶의 경험을 통해 각각 묘사하고 있는 외국 작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애러비(Araby)」와 에이비트 윤손(Eyvind Johnson) 「보트 속의 남자」라는 두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두 작품은 흔히 말하는 일종의 성장소설로서, 동일하게 어린 시절의 경험을 다룬 톨스따야의 「새와의 만남」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르적

공통점이 지니는 유사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와의 만남」에는 조이스와 온손의 작품의 중요한 특징들이 특히 주도적인 모티프 사용과 주제적인 측면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소설 「애러비」는 「새와의 만남」처럼 어린 시절의 미숙한 사랑의 감정과 그로인한 분노에 가까운 절망을 그리고 있다. 조이스는 자신의 소설집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서 도시의 부도덕을 폭로하고 영혼의 마비를 비판하고자 했다.⁷⁾ 「애러비」는 조이스가 연대순으로 배열한 단편 가운데 유년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소년의 사랑이야기로 담아내고 있다. 소년은 친구의 누이를 좋아하게 되는데 어느 날 마침내 그녀가 말을 걸어오게 되고, 애러비 바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만일 자신이 애러비 바자에 가게 되면 무엇이든 하나를 사다준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이후에 볼 수 있는 그의 내면세계의 변화는 그가 그런 약속을 한 이유는 오로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날 저녁 이후로 나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 깨나 머릿속이 어지러웠던가! 그날까지 남은 날들을 쓸어버리고 싶었다. 학교 공부 가 짜증스러웠다. 밤이면 침실에서 낮이면 교실에서, 책을 읽으려고 애쓰는 내 눈앞에 맹진 누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애러비’라는 단어의 음절들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정적을 뚫고 나타나 동방의 매력을 발산했다.⁸⁾

「애러비」의 주인공처럼 「새와의 만남」의 소년도 타밀라의 매력에 이끌려 자신이 평생 외로워해야할지도 모르는데도 알코노스트(Алконост)의 알을 받는다. 이 상황은 「애러비」의 소년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러비 바자에 가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알을 받은 소년은 마치 「애러비」의

7) 그는 1904년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많은 사람이 도시로 생각하는 ‘저 반신불수 혹은 마비의 영혼’을 묘사하기 위하여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더블린 사람들이라 부른다네.”라고 쓰고 있다. 김종건, 『제임스 조이스 문학읽기』, 어문학사, 2015, p. 96.

8)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이종일 옮김, 민음사, 2012, pp. 38-39.

소년처럼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사명감을 부여한다.

Точно, он на ней женится. Раньше он собирался жениться на маме, но раз уж он обещал Тамиле...(68)

그는 분명히 그녀와 결혼할 것이다. 전에 그는 엄마와 결혼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미 타밀라와 언약을 해버렸으니...(87)

어린 아이가 연상의 여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상 속에서 스스로 쌓아 올린 사랑이 실패로 끝날 것임은 이미 예정된 것인지도 모른다. 「새와의 만남」에서 소년을 절망으로 이끈 객관적 요인은 외삼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항상 소년의 순수한 마음을 비웃을 뿐 아니라 소년이 사랑하는 타밀라와 정사를 벌이기까지 한다. 「애러비」에도 이와 유사한 장애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소년이 보호를 받으며 함께 살고 있는 아저씨이다. 아저씨는 소년을 애러비 바자에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늦은 시간에 귀가해 소년이 바자행이 원천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든다. 또한 두 인물은 성격적으로도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외삼촌은 소년의 횡방꾼일 뿐 아니라 생활력도 없이 놀고먹는 인물로 나온다. 또한 어린 아이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한편 아저씨는 소년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는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는 불성실한 인물이다.⁹⁾

「새와의 만남」의 소년의 절망감은 자신의 여인을 차지하고 할아버지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괴물 같은 외삼촌’에 대한 분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이다.

9) “아저씨의 외투의 무게로 옷걸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신호가 무얼 뜻하는지는 뻔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아저씨는 옷걸이에 옷을 함부로 걸고 있으며 이런 일이 매우 빈번히 반복되어 소년이 이미 그것에 익숙해져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책, pp. 40-41. 조이스가 말한 더블린에 사는 아버지의 영혼에 이 아저씨도 속할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어린 소년의 절망적 감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자세히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인공의 분노라는 감정적 공통점을 지니는 「애러비」의 결말은 「새와의 만남」의 소년의 심정을 더 잘 말해준다. 「애러비」의 소년은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 ‘예배가 끝난 후의 교회’와도 같은 시장에 도착해 아직도 문이 열려 있는 자기꽃병과 꽃무늬 찻잔을 파는 한 가게 앞에서 서성인다. 이때 그는 매점 처녀와 청년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다.

“어머나,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라, 했대도!”

“어머,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 안 하던가?”

“웬걸. 똑똑히 들었는데.”

“어머, 순 엉터리!”¹⁰⁾

겉으로 보기엔 의미 없는 농지거리같이 보이는 이 대화는 사실은 소년의 현재 처지를 매우 잘 말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어차피 맹건의 누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즉 전혀 기억하지도 못할 말 한 마디에 그는 마치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이라도 하듯 바자에 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엉터리’ 같은 인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 감잡한 속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허영심에 쫓기다 풀볼건이 되고 만
폰수 같은 내 모습에 두 눈이 참담함과 분노로 이글거렸다.¹¹⁾

「새와의 만남」의 소년의 처지도 이와 비슷하다. 타밀라가 한 많은 말들은 거의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소녀를 둘러싼 소문에 대한 해석과 두꺼비 반지를 빼면 검은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어진다는 말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이다. 결국 소년은 자신의 유아적 열망으로 오해를 키우고, 상상력으로 자신의 책임을 과장했던 것이다.

10) 같은 책, p. 42.

11) 같은 책, p. 43.

주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작품은 유년 시절 경험한 사랑의 감정과 그 감정이 일방적인 것이었으며 혼자 남겨진 세상은 너무나 냉혹함을 깨달았을 때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은 단순한 사랑이야기는 분명 아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이스가 자신의 작품집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더블린의 위선과 마비의 상태였다. 거리의 무질서와 소음, 아저씨의 무책임한 행동, 기차 정거장의 혼잡 등 크고 작은 디테일들이 더블린의 마비 상태를 폭로하고 있지만, 소년이 겪은 절망이 무엇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서이며 이는 더블린의 마비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새와의 만남」의 끝부분에서 할아버지가 죽기 전 소년이 꾸는 꿈은 「애러비」에서의 마비의 상태와 유사하다. 그는 꿈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표(билет)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 표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기차표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년은 여기서 임의의 공간으로의 입장을 위해 필요한 표와 소련의 지폐를 혼동하고 있다.

Конечно, чтобы выйти, нужен билет! Вон касса. Дайте билет! Казначейский? Да, да, пожалуйста, казначейский! «Подделка казначейских билетов преследуется по закону». Вон они, билеты: длинные, черные листы бумаги. Погодите, в них же дырки! Это преследуется по закону! Дайте другие! Я не хочу! Портфель раскрывается, из него вываливаются длинные черные билеты, все в дырках. Собрать, скорее, скорее, меня преследуют, сейчас поймают! Они распозауются по полу, Петя собирает, запикивает как попало; толпа раздается, кого-то ведут...(75)

그래, 밖으로 나가려면 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저기가 매표소구나. 표 한 장 주세요! 국가券¹²⁾가? 그래, 맞아, 국가표 주세요! ‘국가표의

12) 러시아어로는 казначейский билет이라고 하는데 소비에트 시대에 국가재정기관이 발행한 표, 즉 지폐를 뜻한다. 여기서는 입장권(ticket)을 뜻하는 표와 발음상 유사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어색하지만 일반 표와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국가표’라고 번역하였다. 그 본래 의미를 그대로 살려 번역한다면 ‘국가재정기관발행표’가 맞지만

위조는 법에 따라 처벌받음’ 여기 있어요, 길고 검은 종잇장들. 잠깐만요, 거기에 구멍이 나있어요. 이건 위조표예요! 다른 것을 주세요! 싫어요! 가방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길고 검은 표들이 떨어지는데 모두가 구멍이 나있다. 주워요, 어서, 어서, 나를 처벌할 거예요, 지금 나를 붙잡을 거예요! 표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폐차는 손에 잡히는 대로 모아 쭈셔 넣는다. 군중이 길을 터주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데…(99)

소년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표를 구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재정기관이 발행한 표인 지폐를 위조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원래 ‘국가표’는 외삼촌이 소년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며 건넨 1루블 짜리 지폐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지폐에 적힌 경고문을 소년은 지루한 성인의 말(слова скучные, взрослые)로 여긴다. 따라서 지폐는 어른들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꿈에서 소년은 위조의 혐의를 받게 되며 이는 그가 금지에 기초한 성인의 세계에 상징적으로 편입되게 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¹³⁾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는 두꺼비 반지나 성냥갑 속 알은 이제 소년에게 환상의 세계가 끝이 났음을 말해준다. “누구도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단다. 모든 게 진실이야, 꼬마야. 모든 게 사실이란다.”¹⁴⁾라는 내면의 울림은 소년에게는 환상의 상실이라는 커다란 절망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이 된다.

이상으로써 살펴보았듯이 「새와의 만남」은 주요 모티프 사용의 차원뿐만 아니라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애러비」로부터 많은 영감을 공유하고 있으며 「애러비」에 사용된 많은 문학적 디테일이 비유로 가득한 「새와의 만남」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주인공이 어린 소년임을 감안할 때 소년이 알기에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국가표’로 옮겼다. 참고로 이수연은 이 작품의 번역에서 이를 ‘국가 발행 표’라고 옮겼다.

13) 외삼촌의 담배 심부름을 가면서 소년은 외삼촌이 모욕적인 비웃음으로 항상 자신의 환상의 세계를 순식간에 날려버린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시 소년의 환상이 이어지는데 이 환상은 중앙아시아 화폐 단위인 “비르 슴, 비르 슴, 비르 마나트!”로 끝나는데 이는 그가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맥락에서 보면 화폐 단위는 곧 현실이며 이 현실은 어른인 외삼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4) “Никто не уберется от судьбы. Все - правда, мальчик. Все так и есть.”(76)

15) 바일과 게니스는 폴스파야의 비유가 삶을 동화로 바꾸는 마법의 지팡이라고 말하면서

「새와의 만남」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티프로 죽음을 언급한 바 있다. 에이비트 존슨(Eyvind Johnson)의 「보트 속의 남자」는 유년에 처음 만나는 죽음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담고 있다. 「새와의 만남」에서 죽음이 시린이라는 새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면 「보트 속의 남자」에서 죽음은 보트 속의 남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197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국민작가 존슨은 인간 자신이 직접 체험할 수 없어 어찌면 영원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관념인 죽음을 유년의 눈을 통해 성공적으로 형상화하였다고 여겨진다.¹⁶⁾

죽음이라는 주도적 모티프뿐만 아니라 「보트 속의 남자」에 등장하는 디테일들은 두 작품 사이의 비교를 유의미하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인공 소년은 친구 하칸을 낚선 보트 속의 남자가 데려갔다고 생각한다.¹⁷⁾ 소년은 하칸을 데려간 남자가

그녀의 산문이 세련된 현실도피의 형태(вид утонченного эскапизма)라고 평가한다. П. Вайль, А. Генис, "Городок в Табакерке", 『Звезда』, 1990, No.8, С.148-150. 톨스따야의 비유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두 연구자의 평가는 일면 부정적이다. 비록 이 두 연구자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이스 작품과의 비교는 이런 기준 시각을 어느 정도 교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16) 이문열은 보트 속의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하는,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보트 속의 남자가 곧 형상화된 죽음이라는 근거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이문열 세계명작산책3, 성장과 눈뜸, 2005, pp. 364-365.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에 따르며 인용문 끝에 쪽수를 표시하기로 한다.

17) 사실 하칸이 물에 빠져 죽은 장면은 매우 모호하게 묘사되어 있다.

“나는 그가 비틀거리다가 미끄러져 물속으로 빠지는 것을 뻔히 보고만 있었다. 모두가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하칸은 빨강계 타고르고 있는 수평선 앞에서 춤추는 실루엣으로 빠진 것이었다. 그 장면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리고 물속에 잠겨서 나를 올려다보던 그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눈에 선하다. 나는 그의 겁먹은 얼굴과 함께 창피해하던 얼굴을 기억한다. 얼마나 멧쩍고 무서웠을 것인가.

호수의 수면은 물결이 심하게 일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로 손을 뻗었다. 이미 어두워지고 있는데다가 해는 지고 남쪽의 그 빨강계 물든 수면은 출렁거리 대는 통에 거리를 가늠하기가 영 힘들었다. 하칸의 얼굴은 물에서 자맥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쩡그린 얼굴로 웃음을 보이려 했다. 마치 이 무슨 망신이란, 하고 말이라도 하듯. 나는 계속 그에게로 손을 뻗어댔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한참이 지난 후의 일들이다. 한 시간, 어찌면 그보다 더 시간이 흐른 뒤인지도 모른다. 나는 뗏목 뒤쪽에 앉아 있었고, 하칸은 앞쪽에 앉아

호수의 동쪽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소년에게 있어 동쪽 땅은 호기심과 두려움의 장소가 된다. 「새와의 만남」의 소년도 자기 마을에 있는 특정한 장소를 두려워하며 그곳에 죽음의 새인 시린이 살고 있다고 믿는다.

두 작품에는 네덜란드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는 대단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 배의 영어 명칭은 Flying Dutchman인데 이미 통용되는 우리말 번역은 이 전설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다. 러시아어 번역은 ‘Летучий голландец’로 영어 명칭을 그대로 옮겼다. 다시 말하자면 두 작품에 등장하는 배의 명칭은 동일하다. 원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이야기는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대양을 영원히 항해해야 하는 저주에 걸린 유령선 전설”이다.¹⁸⁾ 바그너는 북유럽에서 내려오는 전설과 하이네의 소설에서 소재를 취해 오페라를 만들기도 했다. 이 전설의 핵심적인 내용은 「보트 속의 남자」에 잘 나와 있다.

나는 그 해 여름, 많은 책을 읽었다. 그중에서 내가 제일 재미있게 읽은 책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이야기였다. 그는 한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선원을 구하지 않고 내버려둔 무서운 죄를 범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에

있었다. 그는 등을 나에게로 향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추운 듯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348-349)

당시 소년의 생각에 하칸은 죽지 않았다. 단지 보트를 탄 사나이가 데려갔을 뿐이다.

“나는 달빛 속에서 그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모르는 남자였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내였다. 머리칼은 검고, 얼굴은 길고 가늘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서는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하칸만 바라보았다. 그는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구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하칸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칸은 그 손을 잡고 조심스레 보트로 건너가 이물 쪽에 앉았다. 둘 사이에선 한 마디 말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선 채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보트는 뗏목에서 떨어져 갔다. 그것은 나로서는 무슨 영문인지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사나이는 자기 자리에 앉더니 노를 저어 갔다. 하칸은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사나이는 노질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보트는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351-352)

독자들도 소년과 마찬가지로 하칸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소년이 구조된 이후로 하칸의 죽음은 혹시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소년을 위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18) 인터넷 위키백과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참조할 것.

게는 어떤 항구에도 정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항해만 해야 하는 저주가 내려졌다. 그의 배가 항구에 가까이 가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배를 깊은 바다로 밀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찾아 끊임없이 항해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다. 달밤이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 뱃사람들이나 바닷가 사람들 중엔 키에 묶여 끊임없이 항해만 하는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355-356)

소년이 이 책을 가장 재미있게 읽은 이유는 오랜 세월이 지나 존재가 잊혀진 바로 그 네덜란드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서다. 소년은 그와 관련해 알게 된 특징들 속에서 자신이 본 보트 속의 남자와의 관련성을 찾는다.

“아시겠어요, 할아버지? 그를 볼 수 있는 건 아주 깊은 밤중뿐이에요. 낮에 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가 누군진 아무도 모르고, 누구와도 그는 말을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깊은 밤이 되어서야 육지 가까이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구요.”(356)

소년의 보트 속의 남자를 만났을 때의 자신의 경험과 최근의 독서 경험을 일치시켜서 자신이 지금 안고 있는 의문점, 즉 왜 하칸이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저주가 내려진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 바로 보트 속의 남자라는 것이다.

“아무도 그를 모른다니까요. 그는 밤이 깊어야 사람 눈에 펴 수 있는 곳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밤중에 나타난 것 아니요? 모르시겠어요, 할아버지? 아무래도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356)

그러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 관한 전설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선원을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소년은 하칸이 사라진 이유를 그를 데려간 보트 속의 남자에서 찾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는 물에 빠진 하칸을 구하지 못한 강한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그게 소년이 그 책을 가장 재미있게 읽은 진짜 이유인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소년은 그가 방황하며 찾아 헤매던 보트 속의 남자가 이제 하칸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하칸이 자신에게 보내는 미소를 통해 소년은 비로소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새와의 만남」에서 소년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란 이름의 배를 제작하는 이유는 타밀라와 함께 아틀란티스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사람들을 찾으러 가기 위함이다.

Он будет сидеть на ступеньках веранды и стругать палочки для парусника, и назовет его Летучий Голландец. ... поедут на поиски пропавшей, соскользнувшей в зеленые зыбкие океанские толщи Атлантиды.(69)

그는 베란다에 앉아 배를 만들기 위해 널빤지를 대패질하고 있을 것이다. 그 배의 이름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다. ... 아틀란티스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실종된 사람들을 찾으러 갈 것이다.(생략은 필자의 것임. 88)

배를 만들어 실종된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소년의 결의에 찬 목표 설정 이후에 직전까지의 특별할 것 없는 과거 삶에 대한 회상이 이어진다. 그런데 그 회상 장면이 아픈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배는 할아버지와도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Дедушка, вот же мы все тут! Лампа горит, и скатерть белая, и я вырезал кораблик, а Ленечка нарисовал петушка! Дедушка?(70)

할아버지, 봐, 우리 모두 할아버지와 함께 있잖아! 불은 환히 빛나고, 나는 작은 배를 만들려고 나무를 잘랐어, 레노치카는 닭을 그렸네! 할아버지?!(91)

그리고 이후 다시 두 번에 걸쳐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 첫 번째는 타밀라와 보내는 매혹적인 삶과 자신의 지루한 일상적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분에 등장한다.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드는 자신의 삶을 추스르면서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책임감을 다진다.

Ах, не хочется уходить! Дома надо молчать и про Тамилу (вырасту, поженимся, тогда и узнаете), и про Сирина, и про искристое яйцо птицы Алконост, владелец которого затоскует на всю жизнь... Петя вспомнил про яйцо, достал из спичечного коробка, сунул под подушку и поплыл на Летучем Голландце по черным ночным водам.(71)

정말 그곳에만 있고 싶은데! 집에서는 타밀라에 대하여 말하면 안돼, 나중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시린’ 새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외롭게 살아야 하는 ‘알코노스트’ 새의 알에 대해서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해...

페차는 알을 기억해 내고 성냥갑에서 알을 꺼냈다. 베개 밑에 넣고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타고 한밤의 검은 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했다.(93)

여기서 소년은 마치 전설의 네덜란드인처럼 현재로는 어디에도 정박하지 못하는 떠도는 외로운 항해를 시작한 듯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은 소년이 엄마가 걷고 있는 마른 내의를 팽팽하게 바람을 담고 있는 그 배의 하얀 돛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등장한다. 병석에 누워 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바라보는 창밖의 풍경에 비친, 마른 내의를 닮은 돛을 단 배의 모습은 울렁이는 바다 앞에서 위태롭기까지 하다.

мама сняла сушившееся белье — оно захлопало, как белые паруса Летучего Голландца. Зазвенело стекло. Темный сад вздымался и опадал, как океан. Ветер согнал с ветвей птицу Сирина, и она, взмахивая отсыревшими крыльями, прилетела к дому и приняла

лась, поводя треугольным личиком с закрытыми глазами: нет ли щели?(74)

엄마는 마른 내의를 건었다. - 마른 내의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흰 돛처럼 팽팽하게 바람을 담고 있었다. 유리창이 바람에 흔들렸다. 어둠에 쌓인 정원은 바다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바람을 타고 ‘시린’ 새는 젖은 깃털을 활짝 펴고 집으로 날아와, 삼각형의 상판대기를 들이대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들어갈 틈이 없을까?(97)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 「보트 속의 남자」에서 주인공 소년의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새와의 만남」에서 소년이 배를 만드는 행위와 소년의 배와 관련한 생각 속에서 그의 무의식을 엿볼 수 있다. ‘방황하는 네덜란드인’과 연관된 그의 생각 역시 방금 여러 인용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할아버지의 목숨과 관련한 일종의 죄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트 속의 남자」의 소년의 경우처럼 비극적 사건 이후에 생긴 죄의식이 아닌 처음부터 소년에게 있던 죄의식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처음에 그 감정은 일종의 사명이나 의무감 같은 것이었지만 점차 죄의식으로 변해갔다. 그는 할아버지를 구해야 할 의무와 타밀라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인공 같은 신세가 된다.¹⁹⁾ 이는 마지막 부분에서 보듯이 그의 죄의식을 심화시키지만 인간의 운명에 대한 내면의 울림을 통해 그의 죄의식은 해소된다.

IV. 나가는 말

이상으로써 따짜야나 톨스따야의 초기 단편 「새와의 만남」을 살펴보았다.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였듯이 톨스따야의 작품은 비유로 가득하다. 「새와의

19) 타밀라를 외삼촌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한 것 역시 그가 타밀라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만남」은 그의 작품이 갖는 비유적 경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유적 경향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독서전략이 필요하며, 그런 이유로 본 논문은 주도적인 모티프의 파악에 천착하였다. 모티프 분석은 우선 새와의 만남이라는 심히 비유적인 제목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였다.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작품 속에 드러난 새와의 만남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품을 이끌어가고 있는 두 개의 주도적인 모티프를 분석하였다.

소년과 여자의 만남이라는 소년의 사랑이야기는 절망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전개되었으며 전체 작품의 한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할아버지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과의 만남의 이야기는 죽음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전개되었으며 작품의 또 다른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유년에 만나는 절망과 죽음은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견지한 일종의 문제의식이 될 것이다.

절망과 죽음이라는 주도적인 모티프가 갖는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유년에 조우한 절망과 죽음을 매우 성공적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조이스의 「애러비」와 에이비트 은손의 「보트 속의 남자」를 각 작품의 주도적 모티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애러비」와의 비교를 통해 「새와의 만남」의 소년의 행위의 심리적 원인이 더 자세히 설명되고, 절망의 구체적 대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절망의 주인공 내적 원인(예를 들어 「애러비」 소년의 허영심과 폐차의 허영심)이 더 명확히 입증된 것은 비교 연구의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트 속의 남자」와의 비교를 통해 폐차의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일종의 죄의식으로 설명한 것 역시 두 작품과의 비교가 주는 유의미한 결과가 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일종의 비교문학적 접근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관계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포스터 모더니즘 문학에서 영향관계는 이미 따로 설명할 것도 없는 당위적 개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비유로 가득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새와의 만남은 유년의 세상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에 작가와 문학의 만남, 작가와 창작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추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추측일까?

❖ 참고 문헌

- 김종진, 『제임스 조이스 문학읽기』, 어문학사, 2015.
- 이문열 세계명작산책3, 성장과 눈뜸, 2005.
- 이수연, 『유년의 서사: 부재하는 실제(『세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3권 제3호, 2008.
- 이수연·최행규, 『‘다른 산문’과 타티야나 톨스타야: 「파카르」의 분석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8권 제2호, 2012.
-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이종일 옮김, 민음사, 2012.
- 타티야나 톨스타야, 『톨스타야 단편집』, 이수연 옮김, 2009.
- Вайль П., Генис А., "Городок в Табакерке", 『Звезда』, 1990.
- Генис А.А. Как и слово// Новая газета. 2010. 20 октября. URL: <http://www.novaya-gazeta.ru/society/1069.html>
- Сизых, О.В. Поэтика русского рассказа конца XX - начала XXI века, М., 2015.
- Толстая Т.Н. Река Окервиль, рассказы, М., 2002.

❖ ABSTRACT

A Study on Tatyana Tolstaya's *Rendezvous with Bird*

Choi, Haeng-Gyu

Through the comparison of "Rendezvous with a Bird" with "Araby", there were found to be well-explained psychological causes of the boy's (Petya) behavior that closely discloses the concrete object of desperation and definitely confirmed the internal causes of heroes (vanity of the boys in "Araby" and "Rendezvous with bird"). Through the comparison of "Rendezvous with a Bird" with "A man in a boat" we also knew that Petya's indefinite fear of death was to some extent a sense of guilt.

This study contains a full-scale review of Russian contemporary writer Tatyana Tolstaya's short story "Rendezvous with a Bird", which is one of the her earliest works.

As many critics indicate, the works of Tatyana Tolstaya resonate with metaphor. "Rendezvous with a bird"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this metaphoric tendency.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taphoric tendency of her works we need our own reading strategy, and so we inquired into the grasp of the main motifs. Analysis of the main motifs can start from the understanding of meanings of the very figurative title 'Rendezvous with a Bird'.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the title, we first of all analyzed the incidents of actual or figurative meetings with birds in this work, and through this we deduced two main motifs.

We confirmed one main motif of 'desperation', which centers on the love of a young boy and woman. We confirmed the other motif as 'death', which developed into the rendezvous of the grandfather with inevitable death. Thus, the 'desperation' and 'death' with which we meet in childhood becomes a subject matter for the writer.

To understand the deeper meanings of these main motifs, we compared "Rendezvous with Bird" with the short story "Araby" by James Joyce and with the short story "A man in a boat" by Eyvind Johnson, which very successfully deal with the motifs: 'desperation' and 'death'.

Key Words

motif, desperation, death, metaphor, *Rendezvous with bird, araby, A Man in a Boat*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